

# 안면 홍조(flushing)의 합리적 접근법

저자 김성철  
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겸임교수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개요

대한피부과학회가 3개 종합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안면홍조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안면홍조 환자가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안면홍조를 진단받은 환자 1809명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안면홍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안면홍조 환자는 약 31%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 12% 증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면홍조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남자는 약 30%(524명), 여자는 약 70%(1,285명)로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 환자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미만은 0.1%, 10대는 1.4%(25명), 20대는 12.2%(221명), 30대는 16.4%(297명), 40대는 20.8%(376명), 50대는 25.8%(466명), 60대는 16.2%(295명), 70대 이상은 7.1%(128명)의 분포를 보였다.(출처 : 헬스 조선) 환자 발생 시기는 주로 봄, 겨울이었으며,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 가면서 온도 차가 커지는 3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다.

홍조는 정서적 변화와 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과성의 국소 홍반성 발진으로, 주로 얼굴에 발생하므로 안면홍조라고 부른다. 주변 사람들은 안면홍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낮 시간에 안면홍조는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야간의 안면홍조는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혈관 확장으로 발생하며, 발생 기전에 따라 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은 원인이 되는 환경이나 물질의 접촉이 없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소실되는 것이 통상 레이지만 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홍조가 나타나면 병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금호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로 치부하는 홍조가 병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본다.

## 키워드

안면 홍조, 주사, IPL, 주사의 단계

## 1. 안면 홍조(flushing)의 정의와 원인

### 1) 정의

안면 홍조는 지속적인 혈관 확장과 수축의 반복으로 비가역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주사(Rosacea)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안면 홍조를 주사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2) 원인

안면홍조의 원인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양하다.

### (1)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유전적인 경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이후에는 생활 습관으로 반복되는 혈관 확장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안면 홍조가 발생한다.

### (2) 감정적 변화

다른 흔한 원인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 (3) 여성 호르몬

50대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폐경기 홍조이다. 통계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약 60%에서 안면홍조를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기폐경이나 수술적으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4) 약물성 홍조

약물에 의해서도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 안면 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 스테로이드 제제이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혈관 수축제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빈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으로 생긴 안면 홍조는 자연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되어 있다.

고혈압 약제, 협심증 약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안면홍조를 흔히 유발하는 약제이다.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나 위장약 중에 일부도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5) 기타의 원인

그 외에 얼굴의 중앙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주사와 같은 피부 질환뿐 만 아니라 신경계통 질환, 갑상선 질환, 부신 종양 등 다양한 의학적 상태에서도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고, 뜨거운 음료나 치즈, 초콜릿, 매운 음식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3) 안면 홍조의 증상

안면 홍조를 가진 분들의 가장 불편한 점은 화끈거리는 작열감이다. 이는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기에 피곤이 누적되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게 된다. 잠자는 환경이 너무 더우면 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오전에 기상 후에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식사 때 말할 때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등 교감 신경이 자극되는 상황에서 얼굴 붉어짐 증상이 심해 지게 된다. 이런 증상은 미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한다.

## 2. 주사(Rosacea)

### 1) 주사의 정의

주사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비교적 흔한 만성 피부질환이다. 얼굴의 중앙부위, 특히 코 주변부와 같이 돌출한 부위와 뺨, 턱, 이마 등에 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홍반과 구진, 고름 물질, 반복적인 홍조 및 모세혈관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주사라고 하면 통상 딸기코라고도 일컫는다. 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딸기코는 주사라는 병이 아주 심해져서 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로서 술에 의해 악화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주사라는 병은 주로 20대를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항상 술을 마신 듯이 빨갛고, 쉽게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화끈거리는 증상이 수반하고 더 심해지면, 마치 여드름과 비슷한 구진이 생기기도 하고 노랗게 고름이 잡혀서 농포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얼굴 피부에 있는 실핏줄이 늘어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일 수도 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피부가 과도하게 증식되어서 울퉁불퉁하게 불거지게 되어 딸기코 같이 되기도 한다.

주사(Rosacea)의 의미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미같다(like rose) 라는 뜻이다. 즉 얼굴이 항상 장미 처럼 붉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주사의 한자어는 술을 의미하는 '주(酒)'와 여드름을 의미하는 '사(篩)'가 결합된 단어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얼굴이 빨갛게 된 상태, 즉 주독이 올랐다는 상태와 비슷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드름과 비슷한 뾰루지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사를 여드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주사를 얘기할 때 여드름을 의미하는 Acne라는 말을 붙여서 Acne Rosacea라고 하지만 여드름과 주사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자료 출처 : 대한 피부과학회)

## 2) 주사의 발생 빈도

스웨덴과 미국에서 시행한 역학 조사의 결과를 보면 말이 있을 정도로 주사는 원래 백인들에게 많은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양인이나 흑인들에게는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사의 발생빈도는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예상외로 매우 높다.

주사의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지만 스웨덴에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8%가 주사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바 있고, 미국에서는 20명 중 1명이 주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40명 중 약 1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면홍조나 주사라는 질환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으며 더욱이 주사를 일찍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3) 주사의 호발 연령

### (1) 여자에게 더 흔하다.

주사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흔한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주사라고 진단되는 사람들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그러나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심한 증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실제로 여자에게 주사가 더 많이 생기기보다는 외모에 여자들이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찍 병원을 찾게 되어서 빨리 진단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 (2) 20대와 30대가 지나서 나타난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안면홍조는 통상 사춘기 때에 시작된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자극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결국 주사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대개 20대 혹은 30대이다.

참고로 외국 피부과 교과서에는 주사가 30-40대에 잘 생긴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질환이라도 인종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혈관성 주사가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주사의 호발 연령도 20-30대로 차이가 있다.

### (3) 얼굴이 하얀 사람에게 더 흔하다.

이런 현상은 유색인종보다 백인들에게 주사가 더 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얼굴이 쉽게 붉어지면서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생긴다.

## 4) 주사의 원인

주사가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위장관 질환, 혈관의 취약성, 호르몬, 비타민결핍, 세균감염, 정서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진드기 등이다.

### (1) 혈관의 취약성

주사 환자에게 있어서 혈관의 취약성 즉, 정상 사람들에 비해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도 혈관이 쉽게 늘어나는 현상이 주사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붉어진다. 주사 환자에게 있어서 혈관의 취약성 즉, 정상 사람들에 비해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도 혈관이 쉽게 늘어나는 현상이 주사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붉어지고, 또 한 번 얼굴이 붉어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홍조 증상은 주사에서 뿐 아니라 폐경기의 여성이나 내분비 질환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이 없이 보통 사춘기 때부터 쉽게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를 주사의 소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피부의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정상인과 달리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혈관이 더 쉽게 늘어나고, 또 늘어난 후에 원래대로 잘 오므라들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면, 혈관이 항상 늘어난 상태로 있게 되고 따라서 병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이다.

### (2) 유전적 소인

주사 환자의 30-40%에서 주사의 가족력이 나타난다. 즉, 식구 중에 주사의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30-40%라는 뜻이다. 하지만 다른 유전질환과 달리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주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에게 주사가 유전된다는 것은 아니고 집안 식구 중에 주사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사가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유전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 (3) 위장관 질환

주사가 있는 사람은 주사의 증세가 없는 사람보다 설사나 변비 또는 소화장애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사가 있는 사람들 중 50-90%가 어떤 형태로든 위염을 앓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것은 정상인

들이 위염을 앓는 빈도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사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위장관 질환이 주사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 (4) 헬리코박터 감염

헬리코박터(Helicobacter)라는 세균은 위염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균이 위에서 위산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굴을 붉어지게 함으로써 주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가설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 (5) 심리적 요인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심해진다.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주사의 전적인 원인은 아니다.

#### (6) 호르몬

생리, 임신 또는 폐경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주사의 원인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주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주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것이 전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 (7) 모낭충 감염

얼굴 피부의 모낭에는 모낭충이라는 진드기가 살고 있다. 모낭충은 우리 몸에 유해하지는 않다. 즉, 우리 몸을 숙주로 하여 숙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기생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낭충은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많이 발견된다. 주사 환자의 피부를 조직 검사해 보면 정상보다 더 많은 모낭충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주사 치료에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이란 약제가 원래 기생충 치료제인데 여기에 반응한다는 것도 이것의 근거로 꼽힌다. 하지만 모낭충이 주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증거는 아직 없으며 모낭충이 주사 환자에게 많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많다.

#### (8) 선천적 면역 반응(innate immunity)

최근 주사 환자에게 있어서 선천적 면역반응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문제로 진피 내에 염증이 잘 생기고 따라서 혈관이 잘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주사 치료에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9) 환경적요인

##### ① 자외선

자외선은 피부를 늙게 하는 주범인데 주사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자외선을 쬐게 되면 얼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혈관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외에 자외선은 피부 깊이 들어가서 혈관 주위에 있는 탄력섬유나 콜라겐을 파괴시킨다. 따라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혈관이 자극에 의해 보다 쉽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외선 중에 피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외선 B와 자외선 A이다. 자외선 B는 비교적 파장이 짧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주로 피부의 바깥 부분에 영향을 미쳐 기미가 생기거나 타게 만들고, 이런 자외선 A는 유리창도 통과해서 들어오며 그늘진 곳에 있더라도 반사되어 들어온다. 아침이나 저녁에도 자외선 A는 항상 햇볕 속에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주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외선 A와 B 둘 다 차단

되는 복합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 ② 급격한 온도변화

주로 겨울철에 찬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게 된다. 찬 곳에서는 피부의 혈관이 오므라들었다가 따뜻한 곳에 가면 다시 원래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주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어 얼굴이 빨갱게 달아오르게 된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데 심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할 때 또는 감기에 걸리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체온이 높아지면 뇌에 있는 체온중추가 자극을 받아 체온을 낮추기 위하여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피부에 있는 혈관도 늘어나게 홍조가 나타난다.

### ③ 자극적인 음식물

-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삼차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땀이 나면서 혈관도 늘어나게 된다.

- 아주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먹을 때

아주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입에 물게 되면 입안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입 주변을 지나는 혈관의 온도가 따라서 높아진다. 이 혈관은 바로 대뇌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올라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땀샘을 자극해서 땀을 나게 하고 혈관을 자극해서 혈관이 늘어나도록 한다. 이 결과 홍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 커피를 마시는 것

뜨거운 음식이나 커피를 포함한 차가 안면홍조 또는 주사에 좋지 않다고 하였는데 커피나 차에 들어 있는 카페인 이 홍조나 주사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 티는 홍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아주 뜨거운 커피나 차가 아니라면 커피나 차를 마셔도 무방하다.

### ④ 술을 마셨을 때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은 술을 마실 때마다 홍조가 악화되게 된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는다. 따라서 땀이 날 뿐 아니라 혈관도 늘어나서 홍조가 나타난다.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 홍조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⑤ 다한증과 안면홍조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면홍조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안면홍조가 있다고 해서 항상 다한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10) 약물성 주사

주사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부신 피질 호르몬제의 남용이다. 얼굴이 붉어지고 구진이나 농포가 생겨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부신 피질 호르몬제 연고를 얼굴에 바른다. 부신 피질 호르몬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바르지 않아서 빨갱던 얼굴이 금방 호전되고 구진이나 농포 등의 염증 증상이 가라앉게 된다. 따라서

자꾸 이런 연고를 바르게 되어 피부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되므로 더 센 연고를 더 자주 바르게 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즉, 피부가 얇아지고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기며 털이 굵어지기도 하고 실핏줄이 더 늘어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사의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소위 '스테로이드 주사'가 생기게 된다.

## 5) 주사의 진행 단계

### 제1단계 : 안면홍조

이 시기는 완전한 주사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주사로 이행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굴이 달아오르면서 붉어지고, 또 일단 얼굴이 붉어지면 쉽게 홍조가 가시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주사의 제1단계이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피부의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정상인과 달리 주사 환자에서는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혈관이 더 쉽게 늘어나고, 또 늘어난 후에 원래대로 잘 오므라들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면, 혈관이 항상 늘어난 상태로 있게 되고 따라서 병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주의사항을 잘 지켜 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에 노출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나는 남들보다 열이 많구나' 또는 '나는 체질적으로 얼굴이 빨개'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극에 노출되고, 결국 본격적인 주사로 진행되어서 제2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 제2단계 (혈관성 주사) : 항상 지속되는 홍조, 혈관확장, 눈의 충혈

주사의 제 2단계가 되면 홍조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얼굴이 술을 마신 사람처럼 빨갱게 되고 실핏줄이 늘어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에 노출되면 얼굴이 더 빨갱게 되면서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또 눈에 있는 혈관도 영향을 받아서 눈이 쉽게 빨개지거나 따끔거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까지 되면 피부과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시기에서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면 주사가 더 진행되어서 제3기 주사로 이행하게 된다. 눈에 증세가 나타나는 비율은 조사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사가 있는 사람들의 약 절반(50%) 정도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대개는 눈에 생기는 증상과 피부의 증세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안과의사들조차도 주사에 의해 눈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제3단계 (염증성 주사) : 주사의 2기 증세+여드름 비슷한 뾰루지

얼굴에 있는 홍조와 모세혈관 확장이 더 심해지면서 여드름과 비슷하게 보이는 뾰루지들이 나타난다.

### 제4단계 : 주사의 3기 증세+딸기코(주사비)

극히 일부에서 더 진행되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딸기 코 모양의 주사비가 나타나는 제4기 주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딸기코가 심하게 나타날 정도로 심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딸기코는 여자들보다 남자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

## 6) 국내 주사 환자의 특징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사 환자들의 임상 양상과 백인들에서 나타나는 임상양상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백인들에서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서 백인들에게서는 제3기 혹은 4기 주사환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서 국내

에서는 1기나 2기 환자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차이는 피부에 있는 멜라닌이라는 색소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외선이 주사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인데 백인들의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자외선에 의해 피부손상이 쉽게 나타나며 혈관도 쉽게 늘어나 주사가 더 심하게 생긴다. 그러므로 선택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금물이다.

### 3. 치료

현재까지 안면 홍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단지 완화만 시킬 뿐이다" 또는 "증상이 조금 호전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오래지 않아 재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의학의 발달로 완치되는 증례도 많이 있다.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특정 원인에 의해서 안면 홍조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였거나 도포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후에는 치료로 약물 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안면 홍조 또는 주사는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므로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는 내복약과 연고제를 주로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에 걸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경과에 따라서 용량과 용법을 조절하게 된다.

#### 1) 내복약

##### (1) 항생제

먹는 약은 대개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한다 하더라도 가벼운 위장장애 이외의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항생제가 어떻게 주사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 기전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항생제의 항균효과 때문이 아니라 항염증작용에 의해 주사 때 생길 수 있는 염증이 줄어들어서 좋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복약은 단기간 복용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장기복용이 필요하다. 주로 doxycycline이나 minocycline 등을 사용한다.

##### (2) 피지 조절제

중증 염증이 심해서 여드름과 비슷한 뾰루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 isotretinoin류의 피지 조절제를 사용한다. 피지 조절제인 isotretinoin은 피부나 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눈 증상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교감신경차단제

혈관이 늘어나는 것을 줄여주는 교감신경차단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치료의 효과는 치료를 시작하고 2-3개월 정도가 지나야 나타나게 된다.

##### (4) 항우울제

감정변화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여 안면홍조 증세가 생기거나 안면홍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는 폐경에 의한 안면홍조가 생길 경우 항우울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항우울제 용량보다 낮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낮은 용량을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피부 혈관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 2) 외용제

### (1) 0.75% metronidazole gel (상품명: 로젝스 겔)

메트로니다졸 성분의 겔 제제는 모낭에 기생하는 모낭충이 주사의 원인에 관여한다는 논문이 다수 있고 기생충 박멸을 위해 이 약을 주사 치료에 사용한다. 실제로 구진과 농포가 많이 있는 경우 모낭충이 증가되어 있기도 하지만 모낭충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주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메트로니다졸 겔은 모낭충 자체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 목적 외에 염증을 줄이는 효과로 사용한다. 피부 혈관이 많이 늘어나면 혈관 벽이 약해져서 체액이 피부 속으로 빠져 나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염증 자극이 다시 혈관을 늘어나게 하므로 얼굴이 더 붉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염증을 줄여주면 홍조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 (2) 트레티노인 크림 (상품명: 스티바 크림)

스티바크림은 여드름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색소, 모공, 피부결 개선, 노화예방 효과가 있으며 오래 사용할 경우 피부의 탄력을 높여준다. 피부의 탄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쉽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홍조에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겔으로 드러나지 않는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홍조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 연고를 처음 사용할 경우 초기에는 자극이 되어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점차 적응이 되면 들뜬 각질이 정돈되며, 주의 사항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저녁에 기초화장을 마친 후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면 되는데 바르면서 입가와 코 옆 접히는 부위는 당기고 불편할 수 있으니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잠시 중단하셨다가 다시 사용한다. (낮에는 바르지 않는다.) 스티바 사용 설명서에는 스티바를 주사 환자에게 쓰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발간되는 피부과 교과서에 몇 년 전까지는 스티바를 주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으며 최근에 나온 교과서에서는 혈관이 주로 늘어나는 혈관성 주사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기재되어 있다.

### (3) 피메크롤리무스 크림(상품명: 엘리델 크림) 및 타크롤리무스 연고(상품명:프로토픽 연고)

프로토픽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발매되면서 안면홍조와 주사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안면홍조/주사가 악화되는 요인 중에 혈관이 늘어나면서 피부 진피의 염증이 심해지는 것인데, 위의 연고들이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 이 약들은 실제로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 줌으로써 주사 치료에 효과적이다. 엘리델과 프로토픽은 성분이 비슷한데 연고 기제(base)가 좀 다르다. 엘리델은 크림 타입이라 끈적거리지 않지만 프로토픽은 연고 타입이라 끈적거리어서 바르기에 좀 불편하다. 하지만 자극은 프로토픽이 좀 적게 나타난다.

처음 바를 경우 자극이 있고, 바른 부위가 붉어지면서 화끈거리거나 따갑고 눈이 따가울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자극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세안 후 로션 같은 것을 바르고 적어도 30분 정도 지나서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바르기 전에 보습 크림(로션이 아니라)을 바른 후에 바를 수도 있다. 그래도 자극이 될 경우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같이 바르면서 자극이 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는 중단하고 엘리델이나 프로토픽 혹은 스티바만 바르도록 한다. 매일 바르지 않고 이삼일에 한 번씩 바르다가 자극이 없을 경우 점차 바르는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 3) 레이저 치료

### (1) 색소(dye) 레이저

혈관을 치료하는 레이저로는 예전부터 색소(dye)레이저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혈관 치료에 많이 써왔던 색소 레이저는 시술 후 딱지가 많이 생기며 아울러 멍든 자국이 생겨서 1달 이상 지속되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는 색소레이저가 혈관을 터뜨려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혈관 내에 있던 적혈구가 빠져 나오기 때문이다. 색소 레이저 치료로 늘어난 혈관이나 흉조가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만족할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심한 딱지와 멍이 드는 부작용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치료를 받기에는 불편하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롱펄스 색소 레이저가 개발되어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브이빔(V-beam) 그리고 브이스타(V-star) 등이 있다. 브이빔도 실제로 사용할 경우 멍이 드는 경우가 꽤 많아서 최근에 더 업그레이드된 브이빔 퍼펙타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브이스타를 만드는 싸이노셔 사에서는 595nm 파장의 빛과 1064nm 파장의 빛이 연달아 나오는 씨너지란 기종을 개발하여 혈관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 (2) KTP 레이저

KTP 레이저는 혈관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응고시켜서 파괴하기 때문에 시술 후 색소레이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KTP 레이저는 시술 후에도 색소침착이 생기지 않으며 치료 다음 날부터 별 표시가 나지 않고 세수나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도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하지만 KTP 레이저는 늘어난 혈관을 파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얼굴이 붉어지기만 하는 흉조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떨어진다.

## (3) 카퍼 브로마이드(copper bromide) 레이저 (상품명: 옐로우 레이저)

옐로우 레이저는 두 가지 파장의 빛이 나오는 레이저이다. 색소에 잘 흡수되는 녹색의 빛과 혈관에 잘 흡수되는 노란색 빛(577 nm 파장)이 나온다. 577nm 파장은 기존의 색소(dye) 레이저의 585nm나 595nm 파장보다 혈관에 흡수가 훨씬 잘 된다. 하지만 그렇게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빛이 혈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즉, 빛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가 혈관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빛은 파장이 길수록 피부 깊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577nm 파장은 585nm 나 595nm 보다 투과력이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585nm 파장을 이용한 레이저로 대체되었다. 최근에는 595nm 파장을 이용하는 브이빔이 개발되어 혈관에 흡수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585nm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혈관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

## (4) IPL

늘어난 실핏줄과 함께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안면홍조와 주사의 치료에 IPL(intense pulsed light)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3주 간격으로 5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IPL 시술 후에도 물집이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레이저 치료에 비해 훨씬 줄었고 세수나 화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IPL치료는 흉조나 늘어난 혈관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주근깨나 잡티도 열어지게 하며 피부의 탄력을 높여줘서 전반적인 피부 톤이 개선되어 밝아지게 된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주사가 있어서 IPL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5회 치료 후에 약 75% 정도였다. 사람에 따라 치료반응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으로 90% 이상의 치료만족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30% 정도의 효과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백인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료만족도가 10% 정도 낮은 것은 백인들이 피부에 색소가 동양인들의 피부에 색소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사실상 모든 혈관 치료 레이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거 : S&U피부과)

#### 4. 결론

안면홍조 또는 주사는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증악되며 매우 개인적인 소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인을 잘 추적하여 이에 합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것은 잘 치료가 안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질환 중의 한 가지이다. 대부분의 증례가 딱히 생명과 관련된 질환이라기보다는 미용 상의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약국 임상에서는 안면 홍조 또는 주사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숙지하여 본 질환에 대한 접근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약사 Point**

1. 안면 홍조를 야기하는 기저 질환 또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갱년기 장애의 주요 증상 중에 안면 홍조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치료법은 비 호르몬적 요법 즉 승마제제 또는 식물성 에스트로젠 요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약물성 안면 홍조를 야기하는 주된 약물은 나이아신 또는 고혈압 치료제 중 칼슘채널억제제가 대표적인 약물이다. 나이아신에 의한 안면 홍조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를 투여하고 고혈압 치료제 때문에 안면 홍조가 심하다면 약물의 변경을 유도하여야 한다.
3. 정신 불안에 의한 안면 홍조에는 습관성이 없는 신경안정제(천왕보심단 등)를 계속 복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알코올 섭취로 인한 안면홍조 또는 주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주가 최선이다.

**■ 참고문헌 ■**

1. 국민 건강 지식센터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2/2017052201966.html](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2/2017052201966.html)
3. 대한 피부과학회
4. [www.snurose.co.kr](http://www.snurose.co.kr)
4. 김성철 교육 교재 : 안면 홍조와 약국 경영 (2015년)